

“통일한국 간호의 미래 꿈꾸다”

간호대학생들, 2018 통일걷기 참여 ... 간호협회에서 후원

“앞으로 통일이 된 한반도에서 간호사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간호대학생들이 ‘2018 통일걷기-민통선, 평화로 걷다’ 프로그램에 참여해 통일한국의 미래와 간호사의 역할에 대해 관심을 갖고 생각하고 느끼고 꿈꾸는 시간을 가졌다.

통일걷기는 6월 25일부터 7월 6일까지 11박 12일간 열렸다. 6.25전쟁의 아픔을 기억하고 평화를 희망하며 청년들의 꿈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으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했다. 대한간호협회에서 후원단체로 참여해 구급약품을 지원했다.

통일걷기 참가자들은 파주 임진각에서 출정식을 가진 후 연천-철원-화천-양구를 거쳐 고성 통일전망대까지 총 342km를 걸었다.

간호대학생으로는 서준혁(충북대 3학년), 양혜중(충청대 2학년), 이효상(강릉원주대 3학년) 씨 등 3명이 지원해 완주했으며, 대한간호협회 직원인 주은규 간호사가 함께 참가했다.

간호대학생들은 “아름다운 우리 국토를 매일 30km씩 걸으면서 통일의 의미와 통일한국의 미래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게 됐다”면서 “통일 이후 간호사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미래 어떤



간호리더가 돼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시야를 넓힌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통일걷기에 참가한 학생들을 6월 27일 방문해 격려했다. (사진)

대한간호협회는 다가올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해 간호계 리더를 양성하고 통일간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에게 한반도 통일과 평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8 통일걷기’ 참가비를 지원했다.

정규숙·이진숙 기자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병원 52곳으로 늘어

자살시도자 10명 중 9명 ‘충동적’ 시도 ... 체계적 사후관리 통해 자살위험 감소

자살시도자 10명 중 9명은 충동적이었으며,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이 자살위험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는 ‘2017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결과를 발표했다.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은 2013년부터 시행됐으며, 병원 응급실에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2명의 전문인력을 배치해 자살시도 응급실을 내원한 사람에게 상담 및 사례관리 등 사후관리를 해준다.

자살시도자가 퇴원한 후에도 전화 및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정신건강 및 복지서비스,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 자살 재시도를 막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조사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총 42개 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 1만2264명을 대상

으로 실시됐다. 분석결과 응답자 중 과거 1회 이상 자살을 시도한 비율은 35.2%이었으며, 75.3%는 1주일 내 다시 자살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자살시도 동기는 정신건강문제 31.0%, 대인관계 23.0%, 말다툼 등 14.1%, 경제적 문제 10.5%, 신체적 질병 7.5% 순이었다.

자살시도자의 53.5%는 응급상태였고, 88.9%는 충동적으로 시도했다. 52.1%는 자살시도 시 도움을 요청했다. 자살시도자는 자살사망자에 비해 여성과 20대의 비중이 높았다.

또한 자살시도자 3999명을 대상으로 사후관리서비스를 시행하고 그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 자살위험도와 자살계획·시도에 대한 생각이 감소하고 알코올 사용, 스트레스, 식사, 수면문제, 우울감

등에서 상태가 호전됐다. 전반적 자살위험도는 사후관리 서비스를 1회 받았을 때 15.6%에서 4회 받을 때 6.3%로 감소했다. 자살계획은 3%에서 1.3%, 자살시도 생각은 1.6%에서 0.6%로 줄었다. 알코올 사용문제는 14.5%에서 10.7%, 스트레스 요인은 73.3%에서 58.3%, 식사 및 수면 문제는 47.9%에서 35.4%, 우울감은 62.0%에서 44.6%로 감소했다.

한창수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은 “사후관리를 통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적절한 치료 제공과 사회경제적 지원으로 자살시도자의 자살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수행기관을 올해 총 42개에서 52개 병원 응급실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혜진 기자 hjoo@

공병혜 교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으로 위촉

공병혜 조선대 간호학과 교수가 대통령 소속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6월 12일자로 위촉됐다. 임기는 3년이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국가생명윤리 및 안전 정책의 최고 심의기구로서 인간대상연구, 배아줄기세포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등 윤리적 문제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역할을 한다. 과학계와 윤리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14인과 정부위원 6인으로 구성된다.

공병혜 교수는 고려대 간호대학을 졸업했다. 독일 마하임대에서 철학과 독문학 석사학위, 하이델베르크대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



었다. 서울대 예술문화연구소에서 박사 후 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한국칸트학회 부회장, 한국적철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한국여성철학회 편집위원장, 한국칸트학회 편집위원장, 간호사상연구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주혜진 기자 hjoo@

직업건강간호학회 ‘노동자 직업건강관리’ 학술대회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회장 김현숙)는 2018년 전기 학술대회를 ‘특수형태 및 건설업 노동자 직업건강관리’ 주제로 7월 4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건설업 노동자의 건강관리 방안을 모색했다.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방향’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관리 방안’ ‘건설업 노동자의 건강관리’ ‘건설업 보건관리의 사례’ 등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이



어 각계 전문가들이 보건관리의 법·제도적 과제 및 근로자 직업건강관리 현주소 등에 대해 토론했다.

김현숙 회장은 “안전의 시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건설업 노동자의 보건과 직업건강관리에 대해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이 축사를 했다.

주혜진 기자 hjoo@

첨단의료복합단지 임상시험센터 구축 협의체 운영

보건복지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전임상시험에서 임상시험까지 연계지원하게 될 임상시험센터 구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임상시험이란 새로 개발된 신약후보물질이나 의료기기를 사람에게 사용하기 전에 동물에게 사용해 부작용이나 독성, 효과 등을 알아보는 시험이다.

협의체는 복지부와 관련 지자체 및 의료기관, 임상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해 복합단지 내 임상시험센터 구축에 반영할 임상관련 정책이나 제도, 최근 트렌드, 활용기술 등을 탐색하고 논의하게 된다.

최근 임상시험 분야는 임상시험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자중심의 안전한 임상시험 환경을 마련하기 위

해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사물인터넷, 몸에 착용할 수 있는 전자 기기 등을 활용하고 있다.

협의체는 임상시험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임상시험 기반 구축 방안을 검토하고 임상시험시스템의 표준화에 대해 논의해 나갈 계획이며, 임상시험에 AI(인공지능)나 ICT(정보통신기술)/IoT(사물인터넷) 기술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협의체 1차 회의는 6월 19일 열렸다.

양성일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협의체에 참여하는 여러 전문가들의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논의를 통해 최근 경향과 첨단기술을 적용한 임상시험센터 건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oo@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 출범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일차의료의 질을 제고하고 만성질환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위원회’가 발족했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추진단에는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 의료연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추진단은 ‘일차의료 중심을 하는 지역연계형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동네의원 중심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과 함께 일차의료의 질 제고 지원으로 의료체계 개선 기반 조성, 지역 보건 의료자원 연계와 보건 의료 연계된 커뮤니티 케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추진단과 함께 전문가,

학회,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위원회’를 운영한다. 위원회는 본 사업의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논의·지원하고, 일차의료를 통한 국민건강증진체계 혁신과 민간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키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추진단의 정책 추진 비전을 담은 공동결의문 서명식을 개최했다. 공동결의문에는 △일차의료 활성화 정책 개발 및 시행 △국민, 의료계 등과 상호 협력·소통 기반 정책 추진 △지역의 다양한 자원 연계·공유 시스템 구축 지원 등의 비전과 이를 위해 각 참여기관이 협력해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주혜진 기자 hjoo@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창립 20주년 맞아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회장 이창걸, 이사장 최윤선)는 창립 20주년 기념식을 7월 6일 개최했다.

지금까지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자축하고, 새롭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영적 돌봄상담가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 학회로 1988년 창립됐다. 그동안 학문적 발전, 말기 돌봄의 질 개선, 관련 제도의 정착, 국제적 교류 등을 위해 노력해왔다.

학회는 20주년 기념식과 함께 세계적인 석학들을 초청해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질적 발전과 저변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국제학술회의를 7월 6~7일 개최했다.

학술회에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국제적인 흐름과 각 국가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발전에 대해 공유했다. 완화의료의 통합을 위한 국제지침과 미국에서의 완화의료 및 연명의료의 추세, 증상관리의 최신 지견, 윤리적 의사소통, 소아청소년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학회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창걸 회장은 “우리나라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발전을 위해 모두 힘을 합쳐 노력해온 노력 속에서 창립 20주년을 맞았다”면서 “지금의 학회가 있기까지 많은 사랑과 물심양면으로 노력해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100년을 준비하는 힘찬 발걸음을 함께 응원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oo@

간호사신문		발행인·편집인 신 경 림 인 쇄인 김 갑 기	
1976년 12월 31일 창간 / 등록번호 : 서울0406368			
◇대한간호협회 (02)2260-2511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koreanurse.or.kr		◇간 호 사 신 문 (02)2260-2571 FAX (02)2260-2579 독자주소변경 (02)2260-2571 nursesnews.co.kr	
시·도 간호사회		상 하 단 체	
서울시 (02) 853-5497	충청북도 (043) 272-1573	병원 간호사 회 (02) 2261-1711	
부산시 (051) 253-3824	충청남도 (041) 509-6348	보건간호사 회 (02) 525-7318	
대구시 (053) 756-8485	전라북도 (063) 255-3390	보건진료소장 회 (02) 2296-7677	
인천시 (032) 441-2825	전라남도 (061) 277-2292	보건간호사 회 (02) 527-3360	
광주시 (062) 227-7561	경상북도 (053) 743-2721	마취간호사 회 010-3103-0748	
대전시 (042) 535-0739	경상남도 (055) 282-6006	보혈심사간호사 회 (02) 2263-1959	
울산시 (052) 258-2311	제주도 (064) 747-3811	산업간호사 회 (02) 716-9030	
경기도 (031) 252-0351	군 진 (042) 878-4590	가정간호사 회 (02) 2267-5688	
강원도 (033) 263-6417		정신간호사 회 (02) 425-1271	
		노인간호사 회 (031) 750-5980	

본지는 전문위원 및 전문간호사필요성 중수함이다.




www.RNjob.or.kr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ONE-STOP SERVICE

의료기관의 구인 정보 간호사의 교육·상담·취업을 원스톱으로 도와드립니다!

- ✔ **의료기관**
무료 병원홍보, 구인공고, 취업연계
재취업 실무훈련비 최대 100만원, 실습비 25만원 의료기관에 지급(간호사 1인 기준)
- ✔ **신규·재직 간호사**
지속적 근무를 위한 경력개발 지원 교육
- ✔ **이직·유휴 간호사**
상담사가 근로환경, 출퇴근거리까지 고려한 맞춤형 의료기관 취업 연계
- ✔ **간호대학졸업예정자**
최신 의료정책 소개, 진로교육, 우수의료기관 취업정보 제공

대표번호 **1522-1755**

권역센터 연락처



서울·강원 02-2268-2631~3

부산·울산 051-442-3824

대구·경북 053-756-8487

인천·제주 032-441-2926

광주·전북·전남 062-222-5025

대전·충북·충남 042-825-0749

경기 031-302-9504

경남 055-281-5522